

# K리그, 2012년 이후 최다 평균 관중 넘을까

이미 지난해 123만여명 ↑...서울·전북·대구, 평균 관중 1만명 넘어



‘하나원큐 K리그 2019’를 찾는 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 시즌 실관중집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다 평균 관중이 들어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하나원큐 K리그 2019’ 평균 관중과 누적 관중 수를 발표했다. K리그1의 경우 26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누적 관중 수는 126만6명, 평균 관중은 8077명이다. 이미 지난해 누적 관중(123만1320명)을 넘어섰다.

평균 관중 수의 경우 실관중집계 개념이 도입된 2012시즌 이후 최다다. 실관중집계는 유·무료 구분 없이 현장에서 티켓을 제출하고 경기장에 입장한 인원만 집계하는 방식이다. 지난 시즌부터는 무료로 입장한 관중은 공식 관중에서 제외됐다. 이전 평균 관중 최고기록은 2014시즌 7981명이었다.

구단별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평균 관중 1만명 이상인 팀은 FC서울과 전

북 현대, 대구FC 등 세 팀이다. 2018년과 2017년에는 각각 2만씩(서울, 전북)만 1만 이상 관중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장세다.

이중 대구의 열기가 눈에 띈다. 올 시즌 새로 개장한 DGB대구은행파크에는 평균 1만377명의 팬이 찾아왔다. 이는 지난해 평균관중(3518명)보다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평균 관중 4위 수원 삼성(9795명), 5위 울산 현대(9620명) 등도 1만명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며 K리그1 흥행을 이끌고 있다.

K리그2의 경우 1~3위 팀인 광주 FC, 부산아이파크, 안양FC 등이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평균 관중 1위 팀은 부산(3630명)이고 안양(3446명), 광주(3372명)가 뒤를 이었다.

K리그2에서 평균 관중 수가 3000명을 넘는 팀이 세 팀이나 나온 것은 K리그2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최초다. K리그2 역시 2018시즌 누적 관중(31만627명)을 24라운드(31만9112

명)만에 넘어섰다.

연맹과 각 구단의 올 시즌 관중 동원 목표치는 최대 230만명이다. K리그1에서 약 184만명, K리그2에서 약 48만명이 들어설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즌엔 통상 개막 시즌인 3월에 팬들이 몰렸다 프로야구 개막인 4월 이후 급감하는 일명 ‘상대성 이론’도 통하지 않았다.

올 시즌은 3월 평균관중 기준으로 최근 5년 새 4위로 출발했지만 6월과 8월 최근 5년 중 최다 관중을 기록하며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각 구단이 ‘축강스(축구+바카스)’, 워터파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여름철 관중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제 가을에 맞는 이벤트와 팬 서비스 등을 구단과 기획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즌 후반 관중몰이 요인도 다채롭다. 치열한 선두권 다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진출권, 상위 스플릿과 강등권 싸움 등 볼거리가 차고 넘친다.

여기에 대구 조현우, 전북 문선민, 이용 등 전구구 스타들과 U-20 월드컵 스타 서울 조영욱, 수원 전제진, 강원 이광연 등도 꾸준히 K리그에 모습을 드러내며 팬심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연맹 관계자는 “현 추세로라면, 실관중집계 이후 가장 높은 평균 관중 숫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뉴스1

##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결산

[편집자주]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1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84개국에서 수영 동호회원 등 6000여명이 광주에 모여 수영을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2019년 여름 광주에서는 실력의 차이도, 나이와 성별, 언어와 국가, 장애로 인한 차이도 없었다. 단지 모두가 하나되는 진정한 축제만 있었을 뿐이다.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를 4회에 걸쳐 결산한다.

### 숙박·음식·관광·경제 효과 ‘쏠쏠’

참가비·등록비·숙박비 등 고정수익만 17억원 상회



광주세계마스터즈대회 참가한 선수들이 기념품 판매장을 찾아 수리과 달이 등 대회 공식 마스코트를 구매하고 있다.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는 숙박·음식·관광 등 광주에 적잖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된다.

마스터즈대회는 모든 비용을 참가자가 부담하고, 참가자들이 경기 외에도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을 체험한다.

18일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 참가자들이 지불하는 참가비와 경기등록비, 숙박비 등 마스터즈수영대회 고정수익만 17억여원을 넘어섰다.

참가한 선수와 코치 등 총 등록 인원은 총 5672명. 이들은 한 사람 당 5만~8만원까지 직접 등록비를 내고 참가해 등록비로만 약 4억원의 수익이 창출됐다.

선수 한 명이 여러 종목에 걸쳐 출전하기 때문에 경기 엔트리 숫자는

무려 1만700명에 달했다.

특히 경영 엔트리만 1024팀에 9502명이 등록했고 나머지 경기의 엔트리 등록비용까지 합하면 대략 3억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수촌의 경우 1200여명의 선수와 가족, 언론인들이 머물러 약 10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밖에 경기장 내 마케스트리트의 수익과 경기장 주변 상가는 물론 5000여명의 선수와 코치, 가족 등이 선수촌 이외에 광주 숙박업소에 몰려 지역 상가와 숙박업소들도 특수를 누렸다.

선수촌에 숙박하지 않은 선수와 가족들은 지역 내 호텔이나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머물렀고 주변 상가에서 식사를 모두 해결해 주변 음식점들은 평소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시내 상권을 찾아 쇼핑과 관광을 하는 참가자들도 많아 이들이 광주에서 소비한 돈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광주 도시브랜드 제고 효과는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수익이라 할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참가자들을 통해 광주가 전 세계인들에게 회자되고 광주에서의 경험을 이야기 할 때마다 광주에 대한 인지도 또한 올라갈 것”이라며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 효과는 돈으로 환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1

## 류현진, ‘홈런군단’ 양키스와 격돌...사이영상 경쟁 최대 고비

### 24일 홈 경기 선발 유력

류현진(32·LA다저스)이 강타선을 자랑하는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시즌 13승에 도전한다. 사이영상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 가려는 류현진에게 이번 양키스전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오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양키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다저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홈 3연전에 클레이튼 커쇼-워커 블라-마에다 겐타를 차례로 선발 투수로 내보낼 것을 예고했다.

발다른 변수가 없다면 선발 로테이션상 류현진은 토론토 3연전이 끝난 뒤 열리는 양키스와 홈 3연전 첫 경기에서 마운드에 오른다.

류현진은 최근 등판인 지난 18일 애크랜드 브레이브스와 원정 경기서 5 1/3이닝 6피안타(2피홈런) 1볼넷 5탈삼진 4실점을 기록, 시즌 3패(12승)째를 안았다. 평균자책점은 종전 1.45에서 1.64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 유일한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하면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레이스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다.

다만 최근 경쟁자들의 추격이 매섭다. 지난해 사이영상을 받은 제이크 니그롬(뉴욕 메츠)은 18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서 7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며 최근 16경기 연속 3실점 이하 성적을 보였다.

류현진의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도 부상에 시달리며 오는 23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서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다.



경쟁자들의 막판 추격 속에서 류현진은 아메리칸리그 승률 1위 양키스와 맞붙게 됐다.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9일 기준 팀 타율 3위(0.272), OPS 3위(0.833) 장타율 2위(0.488) 등 각종 타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

무엇보다 양키스는 리그의 대표적 홈런 군단이다. 227홈런을 때려내 이 부문 리그 전체 2위를 기록 중이다.

## 이정은6, 세계랭킹 2계단 ↑ 5위...고진영 4주째 1위

‘핫식스’ 이정은(23·대방건설)이 세계랭킹 5위에 올랐다.

이정은은 20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6.14점을 기록, 7위에서 2계단 오른 5위에 자리했다.

6월 초 메이저 대회 US오픈 우승 후 개인 최고 랭킹 5위에 올랐던 이정은은 한때 9위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5위를 되찾았다.

랭킹 1~4위권은 변함 없었다.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4주 연속 1위를 지켰고 박성현(26·솔레이어)은 2위를 유지했다.

렉시 톰스(미국)는 3위, 이민지(호주)는 4위다.

아리아 주타누간(태국)과 박민비(31·KB금융그룹)는 1계단씩 밀린 각각 6위, 7위를 차지했다.

18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보그너 MBN 오픈에서 우승한 박민지(21·NH투자증권)

이정은은 17계단 오른 64위에 자리했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NEC 가우이자와 72 토너먼트에서 연장을 끝에 준우승을 차지한 이민영(27·한화큐셀)은 11계단이 상승한 46위를 기록했다.

뉴스1

화순군  
HWASUN-GUN

임대정원림

연둔숲정자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자⇒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